

시의 언어

유종호

현학적이면서 별 소용없는 놀음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시와 산문을 구분해서 정의하려는 충동을 갖는다. 그리하여 산문이 그 자체를 넘어서는 목적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즉 어떤 사태를 시사하거나 묘사하며 어떤 행동방침을 권면하거나 처방하거나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시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의 주대되는 목적은 말을 타동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산문의 경우 말은 목적을 수행하는 유용한 연장이지만, 시에 있어서 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인이란 언어를 이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명제 속에서 이러한 생각은 집약적인 표현을 얻고 있다. 사르트르의 이러한 시인관의 배경에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시 전통이 엄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명제는 그러한 시 전통을 맥락으로 해서 투명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극명하게 조명해 주는 경우는 많다. 몰리에르의 어떤 작중인물은 자기가 여태 써온 말이 산문의 언어임을 알고 놀라와 하지만 어쨌건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는 많은 공통성과 함께 차이점을 가지고 있

다. 그 차이점의 하나로 우리는 시에 있어서의 언어의 함축에 대한 무거운 의존을 지적할 수가 있다.

지시적 의미와 함축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시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속의 묵계와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한 낱말은 지시적 의미 이외에도 제각기 특유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함축도 그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의 동의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지역적 시대적 변수에 따라서 지시적 의미보다 상대적으로 고정성이나 항상성이 취약하며 가변적이라 말할 수 있다.

지시적 의미와 함축의 차이는 동의어를 검토해 보면 분명해진다. 부부, 부처, 내외, 안팎, 양주는 모두 동의어여서 그 지시적 의미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축은 크게 달라서 적절치 않게 사용되었다고 생각될 때 큰 감정의 분규를 자아낼 소지조차 있다. 이러한 함축이 크게는 계급적 편견의 소산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계층이 쓰는 말이나에 따라서 그 함축의 성질이 결정되는 수도 있다. 똑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는 어떤 경우엔 김여사, 또는 김여인으로 표기하는 데 이때의 구별이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묵도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계층적 차별의 반영 이외에도 잡다한 요소가 독특한 함축을 구성하게 마련이다. <역사(役事)>와 <공사(工事)>에서 우리는 시대적 변화가 야기시킨 함축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권태>와 <싫증>에서 미묘한 생활감각상의 차이를 감득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함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널리 알려지고 애송되는 표준적인 사회집 흐름의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굳이 작자와 표제를 밝히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는 친숙한 작품이다. 나그네의 동의어로 우리는 여행자, 여객, 행객, 과객, 길손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어로 작품 속의 나그네를 대치해 본다면 이 명시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여행자〉라 해도 파격이요 또 같은 토박이 말이라 하더라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길손〉이라 하면 리듬상으로 커다란 훼손이 온다. 〈길은 외줄기 남도 120길로〉라 하더라도 돌이킬 길 없는 불협화음을 빚어내고 만다. 우스개와 익살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초의 기품 있는 정취는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시에 있어서의 함축의 압도적인 무게를 확인하게 된다. 조그마한 차이지만 실은 그것이 우주적인 차이임을 실감하는 것이다. 시 속에 동원된 낱말들의 걸맞음에서 나오는 조화에 작품의 성질이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지스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꺾리라

인구에 회자되는 이 옛시조에서 <동지스달>을 가령 음력으로 쳐서 11월로 한다면 양력으로 쳐서 12월로 고쳤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이 시조의 정취가 무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2월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라고 해서는 아무래도 원시(原詩)의 정취를 당해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함축의 차이가 지속적일 것이라는 보증은 아무데도 없다. <동지섣달>이란 말을 일상언어로 접하면서 성장한 세대가 <동지스달>이란 말에서 감득하는 함축과 그러한 말을 사전 속에서 익힌 세대가 감득하는 함축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지 팔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마련이었던 세대에게 있어 <동지스달>이란 말이 환기하는 독특한 연상과 함축은 황진이의 시조를 수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친화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외국시의 이해가 어렵고 또 시 번역이 반역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러한 함축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단초의 언어

시가 산문보다 앞서 나왔다는 것은 대체로 시인할 수 있는 소리다. 한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시가 산문을 앞섰으리라는 것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당초의 시 언어는 따라서 사람의 투박하고 절실한 정감을 토로하는 직정의 언어로서 생활에 밀착된 말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민요나 민담을 연구하는 민속문학의 이론에는 생산이론과 수용이론이라는 상반되는 이론이 있다. 민요 같은 것은 농촌공동체 자체의 생산이라는 것이 이른바 생산이론으로 요약되는 반면 고급문화가 사회적으로

하강하고 침전하여 농촌공동체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것이 이른바 수용이론이라는 것이다. 수용이론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민요는 사실상 고급문화의 표절이라는 극단론까지 있다. 그러나 수용이론의 주창자까지도 가령 노동요나 상여노래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농촌공동체 자신의 생산물이라고 해서 침전물과 이를 구분하려 든다. 이러한 민요가 민중의 생활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침전적 표절작품이 상류층의 언어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며 호소력을 갖고 있는 시가 대체로 생활에 밀착된 기본어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사람들에게 선호받는 애송시라는 것이 고급독자나 시인 자신들 혹은 사화집이나 교과서 편찬자의 안목이나 취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어쨌건 선호받는 시의 대부분은 모국어의 가장 기초적인 어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사계를 포함해서 있는 대로의 자연에 대한 화해로운 관계와 부족함이 없는 자연을 지극한 평정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관점을 지닌 이 작품은 단단한 균제성을 가지고 있다. 〈산유화(山有花)〉라는 표제를 제외한다면 산, 꽃, 새, 가을, 봄, 여름, 피다, 지다, 운다, 저만치 등 자연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국면을 드러내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모국어 단어는 누구에게나 성장과정의 초기에 익혀서 가장 오래 알고 있는 어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어휘에 대해서 사람들은 독특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의 입맛이란 대개 어릴 적에 형성된다고 한다. 어릴 적에 맛들었던 것을 구미의 취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국심이란 것은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것에 대한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한 익살꾼도 있다. 자연 풍경만 하더라도 열 살 이전에 익힌 풍물에 대한 선호를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상하는 유토피아의 기본 구도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풍치를 닮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 있어서나 잃어버린 낙원으로 생각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다.

말도 마찬가지다. 극히 어린 시절에 익혔던 기본단어가 이를테면 기층 언어로서 사람의 의식 심층에 자리잡고 있다. 가령 죽는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불가사의 그리고 죽음에 관한 최초의 경험이 주었던 충격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가장 깊은 의식 심층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죽음이란 말을 접할 때 사람들은 이 최초의 충격이나 공포나 불가사의의 환기

를 촉발받는다. 그것은 의식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미묘하면 서도 거역할 길 없는 효과를 야기한다. 선호받는 애송시가 주로 기본단 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심층언어이며 성장의 초기단계에 익힌 단어라는 사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열 두 살 이전에 익힌 모국어의 위력을 얘기한다. 그리 고 열 두 살 이전에 두 언어를 익혔을 때 두 언어가 동시에 <모어(母語)> 구실을 한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열 두 살이 지나서 배운 말은 결 국 제2언어 구실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다급한 경우에 <사투리>가 나오는 것도 그 까닭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망 얼마전부터 이승만 은 실어증에 걸려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한다. 오랜 외국생활 때 문에 모국어의 구사가 늘 별스러웠던 이 노인은 세상을 뜨기 직전에 어 린 적에 배웠던 모국어의 기본어휘로 돌아갔던 것이다. 즉 단초의 기층 언어로 회귀한 것이다. 그가 오랫동안 익히고 썼던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제2언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광섭의 경우

여기서 김광섭의 경우도 하나의 흥미있는 사례가 되어 준다. 김광섭은 젊은 시절 몇 편의 괜찮은 시를 보여주고 나서는 시인으로서의 성장을 정지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아류가 된다는, 흔히 있는 경우를 완전히 전도시킨 희유한 시인의 하나이다. 만년에 그가 보여준 「성북동 비둘 기」 「산」 「겨울날」 「사자(死者)의 대지(大地)」 등은 그의 전작들과 비교 할 때 놀랄 만한 경지에 이른 명편이다. 이산(怡山)의 처녀시집 『동경 (憧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편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우수」에 있어서 조차 기층언어보다는 뒷날의 교양체험의 언어에의 의존을 엿볼 수 있다.

해심(海心)에 깜빡이는 등불로 말미암아

밤바다는 무한히 캄캄하다.
물결은
발아래 바위에 부딪쳐서 출렁이고
자유는
영원한 우수를 또한 이 국토에 더하노라.

어둠을 스쳐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
꺾가에 와서 가슴에 상처를 허비고 사라지나니

이 밤바다에 외치고 가는 시(詩)의 새여
그대의 길도 어둠에 차서 향방없거늘
비애의 시인 고뇌를 안고
또한 그대로 더불어 밤의 대양으로 가라.

여기 나오는 〈해심〉 〈자유〉 〈우수〉 〈국토〉 〈비애〉 〈시인〉 〈대양〉 〈향방〉 등은 극히 어릴 적에 익힌 기층언어는 아니다. 뒷날의 교양 체험에서 얻은 이를테면 후기 습득언어로서 기층언어 특유의 친화적 호소력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어휘들이다. 사실 시집 『동경』에서 대부분의 시는 위의 시가 가지고 있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여타 시편에서 후기 습득언어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다.

비애의 언어를 쫓아내고
신념의 중세(中世)를 쫓아내고
시대의 고뇌를 쫓아낸 뒤

나의 체중이 경기구(輕氣球)가 되어 난다.
나의 미래가 경쾌하게 상승한다.
그 다음엔 관모(冠毛)같이 나는 하늘지경에 가서 운다.

후기 습득언어에의 의존은 이산의 이른바 〈애국시편(愛國詩篇)〉에서도 이어지는데 처녀시집에 있어서보다 그 성취는 단단하고 야무지다.

아 한(恨) 많고
원(怨) 많은 곳에서 홀로 살찌던
일본제국주의
한 민족을 잡아 피를 짜며
악령을 불러 무장하고
세계의 관(冠)을 얻으랴든
일본제국주의

오늘 우리들은
그대의 머리 우에
황혼의 만가(挽歌)를 보내나니
잘 가거라 일본아
코달픈 옷자락에
눈물을 씻으며
영원히 물러가라
흉몽(凶夢)을 안고
심연에 누워
고요히 잠자거라
자장가는
우리의 행진으로 하리라

이리하야
오래 고민하던 시대는 가고

환희에 넘치는 세대가
 분화(噴火)같은 입을 열고
 부르짖으며 행동하나니
 만물은 감격하여
 우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춘다.

——「해방」

그러나 만년의 작품에 오면 후기 습득언어, 교양체험의 어휘는 현격히 줄어들면서 유아기 기층언어에의 의존도가 커지는 것이다. 「산」 「성북동 비둘기」 이하의 명편이 다 그렇지만 편의상 짙막한 시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저녁에」

백도(白桃) 하얀 꽃송이들이 백옥같이
눈부시게 조롱조롱 피더니
얼굴을 맞대고 서로 비쳐서

한 송이가 백 송이의 웃음을 웃고 갔다
이것은 덧없는 인생의 가지가지
슬픔에 대한 토막 이야기다

저녁 등불 아래 앉아서
어느 마지막 잔 같은 차를 마신다

나는 무심히 내 주변을 살펴본다
나의 청춘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작별되었다
지금 다시 눈에 보이고 생각나는 것은 모두
그 작별의 찰막한 유서들이다
그러니 황혼이 울고 있다.

——「황혼이 울고 있다」

진솔한 호소력에 차 있는 이런 시편들과 『동경』 시편들의 거리와 차이는 엄청나다. 그것은 그대로 미숙과 성숙의 차이다. 그러면서도 만년의 시편들이 진솔한 그만큼 어떤 어눌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통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성숙과 진솔의 경지에 도달한 만년 시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일종의 실어증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초로기(初老期)의 이산은 야구 구경을 하다가 졸도하여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회복하였고 또 지병을 지닌 채 만년의 성숙 시편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도 보았듯이 만년시편의 특색은 유아기의 기층언어 내지는 기초어휘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후기 습득어휘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다. 세상을 뜨기 전의 이승만이 영어 실어증에 걸렸듯이 초로 이후의 이산도 후기 습득어휘의 실어병 상태를 나타내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아기의 기층언어로 회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의존하여 우리의 심층을 건드리는 함축의 성숙시편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방증 자료를 보강해야 할 가설이다. 그러나 그 대요가 크게 틀리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앞서도 보았듯이 시의 언어에서 함축은 중요하다. 유아기에 습득한 기층언어일수록 함축과 함의는 풍요하고 또 강렬하다. 심층에 자리하고 있어 그 호소력이 강하게 마련이다. 기층언어는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소리치는 개인적 차원의 〈사투리〉이기도 하다.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정감과 태도를 결정하는 심층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기층언어가 동시에 겨레의 생활과 밀착된 토착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교양체험의 축적과 함께 증가하는 후기 습득언어가 토착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후기 습득언어로 구성된 시의 호소력을 감퇴시키고 그 함축을 그만큼 불모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생활과 유리되고 또 우리들의 잃어버린 낙원과의 거리가 그만큼 현격하기 때문이다.

시의 언어가 함축에 무겁게 의존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시 언어가 탕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양체험의 축적에 따라서 증폭하는 후기 습득어휘 체계를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다. 지적인 산문에서 그러하고 시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후기 습득어휘에 기초한 이산 초기작품 흐름의 관념시의 실패는 시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의 성숙시편의 성공은 초기작품의 실패의 원인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의 언어가 일종의 원시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외경과 신비, 그 공포와 불가사의, 그 뜨거움과 한기를 하나의 경험의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기층언어와 유아기 습득의 기층어휘의 풍요한 함축은 삶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구현하면서 우리에게 전신적으로 호소해 온다. 우리가 선호하는 애송시의 대부분이 모국

어의 기초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적 실패도 이러한 기층언어에 대한 배반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주요 참조문헌

김종길, 「시의 언어」,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김치수, 「문학언어와 일상적인 삶」, 『문학과 비평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4.

월터 J. 옹, 『언어의 현존』, 이영걸 옮김, 탐구당, 1985.

유종호, 「시와 토착어 지향」,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_____, 「시인과 모국어」, 『사회역사적 상상력』, 민음사, 1987.

